

오바마 시대의 세계 선교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 년 1 월 25 일

버락 오바마가 취임한 지금, 세계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새 시대, 새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의 세계는 가까워졌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동일한 소식을 전세계에 보도합니다. 세계적 재정 문제로 곳곳의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UN 과 국제 외교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해 저는 언론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보도하도록 변화될 뿐 아니라, 도리어 예슈아 신앙을 증거할 수 있게 되도록 말입니다. 릭 워렌이 주기도를 하고 예슈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세속 언론이 전세계에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그 어떤 정치보다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바마의 이번 임기를 전례 없는 복음 전도의 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흑인이기에, 수백만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아프리카 혈통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그의 부친이 무슬림이었기에,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 된 “전” 무슬림으로 봅니다. 그가 인도네시아에 살았기에, 수백만의 아시아 사람들이 그를 아시아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가 “자유주의적 세속 인본주의”를 신봉하기에, 수백만의 유럽 무신론자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웅”으로 칩니다.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무슬림 세계를 통틀어 거대한 추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지상 명령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기도모임

1 월 20 일, 취임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 때, 예루살렘 여러 공동체 소속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모임은 사랑하는 형제 오데드 쇼샤니 Oded Shoshani 가 인도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오데드, 아세르, 셸리 마이어스 Shelly Myers, 르우벤 버저 Reuven Berger, 유발 야나이 Youval Yanai 가 인도했지요. 이 모임은 히브리어로 진행되고 영어로 통역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중보와 연합의 영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그 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2장을 따라 오바마를 위해,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안과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강수량과 가뭄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목회자 모임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1월 29-30일), 이스라엘 메시아니 유대 연합 (MJAI)은 전국 이스라엘 목회자-장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니 공동체 내에 유대 문화와 랍비의 전통의 위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논쟁은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몸 내에서 유대 문화의 자리를 논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논의의 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에겐 그들의 믿음을 자기 문화에 따라 맘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구원의 복음이 저해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아주 논쟁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온 듯한 인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랍비 유산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지만 “찬성”하는 이들은 “유대교 Judaism”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15-28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진영 (두 막대기)을 묶으시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게 하소서! 아세르는 주장사 중 한 명으로 강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몸이 하나되고, 가르침이 균형되며 교리가 교정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가사 유전

(이번 주에도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아하발 예슈아의 뛰어난 사역자/목회자 에디 싰또로의 글을 발췌해서 전합니다.)

지금 당장으론 총성이 그쳤습니다. 멀리서 우르르 쿵 울리던 폭발음도 멎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도 재개됐고요. 북적대는 탁아소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들 가운데 무엇이 진정 성취되었나를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 하마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들의 이스라엘 공격 능력도 심히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 널리 퍼져 있는 땅굴 망이 상당히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궤멸되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휴전이 맺어진 지 몇 일 됐다고 땅굴에서의 움직임들을 담은 사진들이 이스라엘 뉴스에 공개됐습니다.
- 이스라엘 군이 적들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아랍 세계에 증거됐습니다. 우리 적들의 진영에 이러한 제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전쟁의 시발이 되었던, 이스라엘 남부 도시들에 떨어지는 로켓탄이 멈췄습니다.

국제 사회

이스라엘이 자위를 하면 언제나 그렇듯,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쟁 범죄” 조사가 오랜 동안 막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 및 그 정당 방위 권리를 비법화하려는 국제적 시도에 맞서려 특별 부처를 설립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또 하나 충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하마스의 실체인 테러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고 그들을 합법적 정당으로 용인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주목적은 이스라엘의 멸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긍휼을 느끼지만, 국제 사회가 자금을 제공하고 재건 원조 노력을 할 때, 하마스와 직접 교섭함으로 시작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가 하마스를 정상적 통치 세력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오래 바라왔던 목표인 국제적 합법성 쟁취는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Saul Berman Jr